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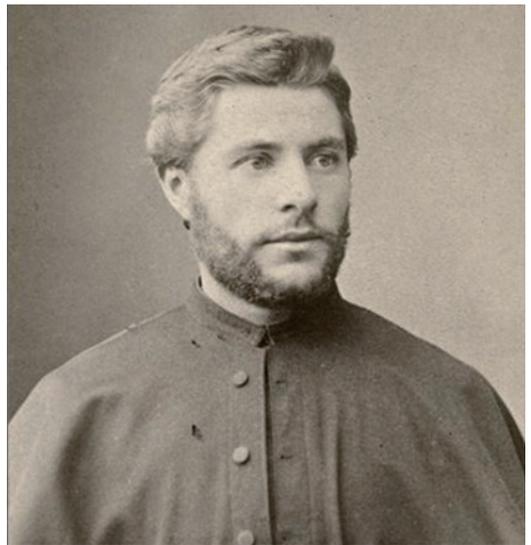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김기호 회장, 교회사 기록에 나오는 김형옥 회장과 동일 인물 (5)

- 김기호=김형옥 요한 회장 관련 자료 ‘추가 내용’ 소개 -

필자는 『상교우서』 2023년 12월호(통권 103호)부터 2024년 3월호(통권 106호)까지 4회에 걸쳐 김기호=김형옥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김기호와 김형옥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교우서』에 정리한 김기호=김형옥 관련 자료 내용을 지난 2024년 2월 17일 ‘2024년 상반기 한국 교회사 연구자 모임’에서 발표했고, 『교회사학』 24호(2024년 3월 31일 간행)에 투고하여 논문 「김기호(요한)와 김형옥(요한) 자료 비교 연구 - 동일 인물 확인」(101~136쪽)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아울러 『상교우서』 원고와 『교회사학』 논문에서 활용했던 김기호=김형옥 관련 자료(원문, 번역문(현대어 표기), 주석을 모아 『교회사학』 24호에 「자료정리 - 김기호=김형옥 요한 관련 자료 모음」(331~390쪽)으로 수록했습니다.

이후에 필자는 김기호=김형옥 요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소개된 자료들과 함께 김기호=김형옥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호의 지면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자료를 정리·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김형옥 회장이 조선말을 가르치고 수행·보좌했던 두세(Ducet) 신부와 로베르(Robert) 신부

1877년 황해도 배천 새터에서 신임 선교사제의 집주인이자 조선말 선생이었던 김 훈장

『봉교자술』(한글본 16뒤~17뒤, 한문본 10앞~10뒤)에 의하면, 김기호(김형옥)는 블랑 신부의 지시로 1877년 3월 이후 가족들과 함께 삭녕을 떠나 황해도 배천(白川)으로 이사했는데 새로 조선으로 들어오는 선교사제를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음력 8월(정확히는 양력 9월 23일) 리텔 주교와 두세 신부, 로베르 신부가 조선에 입국했고, 서울로 올라간 리텔 주교를 제외한 두세·로베르 신부는 배천 김기호(김형옥) 회장 집에 거처하면서 조선말과 풍습을 배웠습니다. 그해 말 로베르 신부는 강원도 이천으로 옮겨가고, 김기호(김형옥) 회장은 두세 신부의 집주인이자 복사로서 사목 활동을 보좌했습니다.

▲ 최지혁의 1878년 1월 31일 포도청 진술

배천 공소 주인이자 조선말 선생에 관련해서는 리텔 주교의 집주인이자 복사였던 최지혁(崔智赫)[최선일의 포도청 진술 기록『좌우포도청등록』]이 주목됩니다.

정축(1877년) 12월 29일(양력 1878년 1월 31일) 최지혁의 두 번째 진술에서 “이[리텔] 주교가 전에 약속한 대로 올해(1877년) 7월에 정(鄭)[丁의 오류] [두세] 신부와 함께 [황해도] 장연으로 와서 저[최지혁]와 상봉했으며, 동행한 지 며칠 만에 정[두세] 신부는 배천읍(白川邑)에서 동쪽을 10리쯤 떨어진 새터(新基)라고 하는 마을의 김 훈장(訓長) 집으로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로베르 김(金) 신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로베르 신부와 두세 신부가 조선 입국 후 제일 먼저 자리잡은 곳이 배천이었기 때문에 최지혁 진술에 나오는 배천 새터(新基) 마을이 두 신부가 머물면서 조선말을 배웠던 곳이고, 새터 마을의 김 훈장이 바로 김기호(김형옥)라고 보입니다.

▲ 로베르 신부의 1879년 4월 19일 서한

로베르 신부의 1879년 4월 19일 서한(A-MEP Vol.580, ff.288~335)에도 로베르 신부와 두세 신부가 배천 공소에서 조선말을 배웠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서한에 의하면, 로베르 신부는 리텔 주교와 헤어져 두세 신부와 함께 조선말 공부를 위해 배천(Poik-thiomé)에 있는 작은 신자들의 마을로 갔습니다. 9월 22일부터 조선말 공부를 시작했는데, 조선말 교재가 될 책도 없고 선생 역할을 맡은 신자도 한문에는 능통하지만 조선말을 가르치는 데는 유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달 반이 지난 후 리텔 주교의 서한을 받았고, 주교의 지시에 따라 로베르 신부는 배천 공소를 떠나 강원도(Kang-ouen-to)로 옮겨가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선말 선생은 김기호(김형옥)로 보이며, 『봉교자술』과 대조해 보면 로베르 신부가 옮겨간 곳은 강원도 이천이었습니다.

신부의 지시로 수차례 평안도 지역을 방문하여 신앙공동체를 재건한 김기호=김형옥

『봉교자술』(한글본 18앞~21뒤, 한문본 11앞~13앞)에 의하면, 당시 대목구장 직무대행인 블랑 신부의 지시로 김기호(김형옥) 회장이 세 차례(1879~1880년, 1880~1881년, 1881~1882년)에 걸쳐 평안도 지역

을 방문하여 예전 신자들을 회개시키고 성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로베르 신부가 평안도 지역 [평양]에 와서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선교사제의 서한에도 김형옥 회장의 평안도 전교 활동이 나오지만, 『봉교자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베르 신부의 1879년 5월 27일 서한(A-MEP Vol.580, ff.606~607)에 의하면, 복사 김[형옥] 요한 회장을 처음 평안도 지역으로 파견한 것은 ‘1878년 12월 초’로, 『봉교자술』에서 언급된 첫 번째 방문보다 1년 정도 빠릅니다. 또한,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는 블랑 신부의 지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78년 방문에서 김[형옥] 회장은 기대 밖의 성공을 거둬 70명의 신자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1879년 가을에 다시 [김형옥] 회장을 보내고 겨울에 로베르 신부가 직접 가서 성사를 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게트 신부가 체포되는 바람에 로베르 신부와 김형옥 회장이 피신을 떠났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 로베르 신부의 1879년 11월 15일 서한[사목 일지]

이번에 필자가 로베르 신부의 다른 서한 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로베르 신부가 1879년 11월 15일에 가족들에게 보낸 서한[1878년부터의 사목 일지](A-MEP Vol.580, 675~717)에 의하면, 로베르 신부는 1878년 12월 26일경 삭녕 공소[예비 신학교]를 떠나 1879년 2월까지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을 사목 순회했습니다. 이때 로베르 신부가 김 회장을 500리 떨어진 지역에 보내어 냉담자들을 권고하여 성교회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의 여행이 헛되지 않아 나중에 75명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성사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 로베르 신부는 배천[Parik tchyen]으로 가서 그곳에서 1879년 설날 하루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필자가 새로 확인한 1879년 11월 15일 서한과 위의 1879년 5월 27일 서한을 비교해 보면, 1878년 12월에 김 회장, 즉 김형옥 회장이 로베르 신부의 지시로 평양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신부에게 냉담했다가 회심하여 성사 받기를 원하는 신자가 70명[또는 75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의 전교활동에 대해서는 『봉교자술』과 로베르 신부가 작성한 서한들의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김형옥=김기호 회장이 평안도 교회를 재건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추가] 김기호=김형옥의 입교를 인도했던 친구, 이 마태오(이덕보)에 대한 자료 소개

『봉교자술』(한글본 4앞~4뒤, 한문본 2뒤~3앞)에서 의하면, 김기호(김형옥)가 처음 천주교서적을 접한 곳은 옛 친구의 집이고, 그 책은 『성세추요』였습니다. 이후 김기호(김형옥)는 천주교서적을 더 읽고 싶어했고, 친구의 주선으로 흥봉주 토마스를 찾아갔습니다. 김기호(김형옥)는 흥봉주를 통해 베르뇌 주교를 만나게 되고 친구 이운거(시몬)과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기호(김형옥)를 천주교로 인도한 신자에 대해 한글본에서는 ‘친구’라고만 나오지만, 한문본

에는 ‘남촌후동의 이 마두(마태오)’(南村後洞 李瑪竇)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태오는 칼레 신부가 1867년 1월경 작성한 ‘1866년 박해의 조선인 순교자들’[순교 보고서](A-MEP Vol.579, f.1225[8~12 정])에 나오는 이덕보(李德保) 마태오[44세로 1866년 3월 1일(음력 1월 15일)에 병사-아사(餓死)함], 『병인지명사적』 7권 44~46쪽과 10권 24~26쪽에 나오는 이덕보(이덕부) 마두(마태오),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1차) 29회차(1899.8.23., 평양본당) 정찬규 베드로(1845년생)의 증언[3권 316쪽]에 나오는 이덕보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관변 측 자료인 ‘포도청등록’에도 심문 받은 신자들의 진술*에 이덕보(李德甫)가 언급되는데, 역시 김기호(김형욱)의 친구 이 마태오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이덕보는 황해도 수안 출신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전교에 힘썼고, 최형(베드로) 집의 행랑을 빌려 훈장 생활을 하다가 1886년 당시 병이 깊어 포졸들이 체포하지 않았고, 그 집에서 병사했습니다.

*** [참조] 이덕보가 언급되는 ‘포도청등록’ 진술 기록**

- 『좌포청등록』 무진(1868년) 5월 24일 한복현(韓復顯)의 진술
- 기사(1869년) 4월 10일 백사현(白士賢, 요한)의 진술
- 경오(1870년) 3월 4일 조학문(趙學汶, 베드로)의 진술
- 『우포청등록』 병인(1866년) 9월 22일 김진(金振, 베드로)의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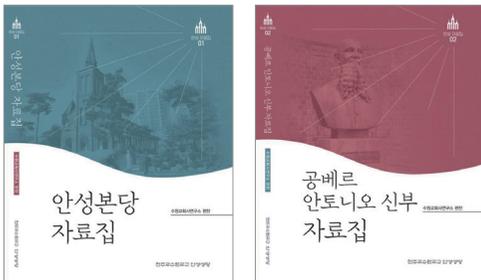
** 포도청등록 기록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이덕보가 서울과 평양 지역에서 전교 활동을 했습니다. ‘좌포청등록’ 기록에는 이덕보의 세례명이 나오지 않는데, ‘우포청등록’ 김진의 진술에는 그의 세례명이 도마(토마스)로 나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안성자료집(전2책), 제1책 『안성본당 자료집』, 제2책 『공베르 안토니오 신부 자료집』

- 2024년 7월 5일 간행 / 문의 전화 : 031-672-0701 (안성성당 사무실)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5호, 9월 30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